

Japan Weekly Digest

2012. 7. 28 ~ 2012. 8. 03

① 주간 경제 초점

- 일본기업의 시장점유율 상위품목 저하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- 삼성, 일본의 가정용 에너지관리시스템 시장 진출
- 은행의 출자규제 완화로 창업 및 기업재생을 지원

③ 일본기업의 협력 동향

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

대한한일경제협회
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① 주간 경제 초점 : 일본기업의 시장점유율 상위 품목 저하

- 28일 발표된 일본경제신문사의 「주요 상품·서비스의 시장점유율 조사」에 따르면, 세계시장점유율 50개 품목에서 일본기업의 상위품목은 9개로 2010년보다 2개 감소
- 다관절로봇, 카메라는 세계시장점유율이 높아졌으나, 자동차 등은 저하되었고, 전기·IT 분야는 열세를 보임

□ 리튬이온전지, 삼성SDI로부터 1위 탈환

- 2011년 일본의 1위 자리가 교체된 품목은 11개. 특히, 한국이 수위를 지켜오던 리튬전지 분야에서 일본이 1위로 부상. 산요전기의 리튬이온전지사업을 통합한 파나소닉이 0.3%포인트 차로 삼성SDI를 제침
- 동일본대지진과 태국홍수의 영향으로 자동차가 3위로 밀려났고, 플라즈마패널(파나소닉), 원유수송량(상선미쓰이)도 1위에서 밀려남

□ 정밀기계산업의 높은 세계시장점유율은 여전

- 일본의 정밀기계산업은 지진피해, 엔고, 신흥국시장 개척노력의 부진 등의 영향을 받긴 했으나, 모노즈쿠리 생산설비나 설계·생산의 경험 및 노하우 등을 무기로 높은 점유율을 확보
- 자동차공장의 조립라인 등에 사용하는 다관절로봇 분야에서는 화낙이 점유율 확대
- 포크리프트 등 산업용차량 분야에서는 도요타자동직기가 엔고에도 불구하고, 1위를 유지하였고, 디지털카메라도 1위인 캐논과 3위인 니콘이 점유율을 높임

□ 세계시장점유율 상위 5위 이내 기업 수, 한·일간 격차 여전

- 이번 조사대상 세계시장점유율 50개 품목에서 상위 5위 이내인 일본기업은 63개사로 미국의 74개사에는 미치지 못하나, 한국의 32개사, 중국의 24개사와 격차는 여전히 존재
- 미국은 PC, 태블릿(다기능휴대단말기) 등 IT관련 품목에서 2010년 보다 1개 품목이 증가한 19개 품목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, 한국의 1위 품목은 8개로 9개인 일본을 뒤를 바짝 추격
- 스마트폰, 박형TV 등 7개 품목에서 삼성그룹이 1위를 차지. 삼성은 반도체 메모리 등 대규모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경영체력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에서 강점을 발휘하고 있음
- 중국은 조선, 가정용에어컨, 냉장고, 세탁기, 담배, 태양전지 등 6개 품목에서 1위로 업종 폭이 넓은 것이 특징. 13억 인구의 국내시장이 강점이나 중국 경제의 감속이 2011년 이후 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음

<세계시장점유율에서 일본이 1위인 품목>

분야 및 품목		1위	2위
모노즈 쿠리	산업용차량	도요타자동차(일본) 18.2(▲0.6)	기온(독일) 14.8(▲1.6)
	다관절로봇	화낙(일본) 18.0(3.7)	ABB(스위스) 12.8(2.4)
	수치제어장치	화낙(일본) 55.0(▲5.0)	지멘스(독일) 22.0(2.0)
	자동차수송	일본우선(일본) 17.8(0.1)	상선미쯔이(일본) 14.8(0.8)
제작 통합 기술	비디오카메라	소니(일본) 44.0(1.3)	파나소닉(일본) 18.0(1.1)
	디지털카메라	캐논(일본) 18.8(0.3)	소니(일본) 17.1(▲0.4)
	게임기	닌텐도(일본) 41.3(6.8)	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(일본) 38.9(0.7)
고기능 부품	백색LED	닛치아화학공업(일본) 28.8(1.0)	삼성LED(한국) 13.3(0.0)
	리튬이온전지	파나소닉(일본) 23.5(17.5)	삼성SDI(한국) 23.2(3.5)

□ 디지털 분야에서 일본기업들의 지반 침하

-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급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관련 제품시장에서 일본기업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
- 태블릿 분야에서는 세계 최대기업인 애플과 2011년 신규 진입한 세계시장점유율 2위인 아마존닷컴 등 양대 미국기업이 60%이상의 점유율을 차지
- 소니는 세계시장점유율 1.9%로 5위에 랭크
- 고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갤럭시 시리즈의 세계적인 히트로 수위에 오른 삼성전자가 아이폰으로 승부하고 있는 애플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, 일본기업들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음
- 한편, 디지털카메라나 백색 LED 등에서는 캐논이나 닛치아화학공업 등 일본기업들이 계속 세계시장점유율 상위를 지키고 있음

□ 일본시장점유율에서 도요타, 혼다의 부진과 닛산의 약진

- 일본시장점유율 100개 품목은 태국의 홍수피해 정도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크게 변동
- 자동차는 주력 차종에서 생산회복이 더딘 도요타, 혼다의 시장점유율이 떨어진 반면, 영향이 비교적 경미했던 닛산자동차가 시장점유율을 높임
- 에틸렌분야에서는 미쓰비시화학이 공장피해로 2위로 밀려나 전체적으로 순위가 교체된 품목은 13개에 이름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□ 삼성, 일본의 가정용 에너지관리시스템 시장 진출

- 7월31일자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일본의 가정용 에너지관리시스템 (HEMS)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보도. 동경전력자회사인 인터넷접속회사(ISP)와 제휴, 스마트폰으로 에어컨 등을 원격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동개발, 집합주택용 시장을 개척한다는 구상
- 가정내에서 삼성SNS의 모니터로 에어컨 조작이 가능. 삼성SNS와 동경전력자회사인 패밀리넷저팬(FNJ)가 제휴, 가정의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의 원격조작기술을 내장시킨 것이 특징
 - 주요기능은 삼성SNS가 담당, FNJ는 인터넷 경유 소프트기능을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 HEMS기능을 내장. 세대 당 도입가격은 25만엔 정도
 - 스마트폰용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사용, 메이커를 관계없이 에어컨 전원을 조작할 수 있음
-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이 가전메이커들을 대상으로 권장하는 표준통신규격이 있기는 하나, 동 규격에 대응한 HEMS나 가전제품은 한정되어 있고, 상이한 메이커제품을 통합하여 원격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은 거의 없음
- 일본기업들도 금년 중으로 동 규격에 대응한 제품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, 원격조작 환경정비를 서두르고 있음. 삼성은 보다 빨리 원격조작 기능을 실현, 시장을 선점한다는 구상
 - 통신규격에 대한 대응도 서둘러 온도설정 등에 의해 세심한 조작을 가능토록 할 방침이며, 시스템도 클라우드로 제공하기 때문에 기능추가도 용이해짐
 - 한국에서는 집합주택별로 제어용 서버가 있는데 비하여, 일본의 맨션은 한국에 비해 세대수가 적고, 도입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클라우드 방식을 도입하여 비용을 억제시키겠다는 것임
- 삼성SNS는 가전제품의 제어기능을 갖춘 HEMS를 새로운 성장 축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일본에 이어 구미시장도 클라우드 방식으로 개척한다는 구상임
 - FNJ는 일본에서 집합주택용을 중심으로 16만대 세대에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이 고객기반을 활용하여 초기년도에 1,000세대에 HEMS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

□ 은행의 출자규제 완화로 창업·기업재생을 지원

- 일본 금융청이 은행의 출자규제를 완화할 방침으로 현행 5%의 출자비율 상한을 10~20%정도로 높이는 안이 부상
 - 벤처기업창업이나 경영재건중인 기업의 주식을 은행이 많이 보유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주로 지역금융기관을 염두에 두고 기업재생을 지원하는 것인데, 그동안 은행의 주식보유를 억제해 온 금융행정원칙의 전환으로 볼 수 있음
- 금년 가을 금융심의회(총리 자문기관)에서 규제완화 논의를 시작, 내년 정기 국회에 은행업 개정안을 제출, 2014년도까지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
- 이법 은행법 개정작업에서는 은행에 의한 기업지배력 집중을 배제한다는 현행 은행법의 방침을 크게 전환시키는 것임
 - 현행 은행법은 회사의 주식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지나치게 기업경영에 관여한다든지 또는 주가변동으로 인해 큰 손실이 보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에 대한 지배력 집중을 배제한다는 방침
 - 구체적으로는 현행 5%의 상한을 10~20%로 높이는 것인데, 신용금고나 신용조합은 현재도 10%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음
 - 20%이상 보유하게 되면 대상기업이 지분법 적용회사로 되어 은행의 연결결산에 경영실적의 일부가 반영되기 때문에 비율을 20%미만으로 억제할 전망
- 지방에서는 벤처캐피털이 적어, 고위험분야에 자금이 투입되기 어려운 경향이 뚜렷함. 지역금융기관 용자에 추가하여 출자를 늘릴 수 있게 되는 경우, 중소기업의 자금유통이 안정되고 새로운 설비투자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음
- 민주당에서도 성장촉진정책의 일환으로서, 은행의 출자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, 5% 상한을 재검토하는 외에 예외규정을 확충하는 안도 검토
 - 현재도 벤처기업 창업은 은행자회사가 10년에 한하여 5%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. 사업재건중인 기업의 채무를 경감해주기 위해 주식에 전환한 경우 등에는 일정기간 5%이상 보유 가능함
- 이와 같은 규정을 완화시키려는 의도는 재건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3월말 상환유예 등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원활화법의 기한 만료, 자금원을 상실하게 되는 기업의 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임
- 출자확대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요구되는 은행경영에 리스크가 커질 우려도 있는데, 기업의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자대상기업의 경영실패로 은행의 손실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임

③ 일본기업의 협력동향

일본기업	발표일자	업종	대상국가/기업	사업형태/내용
노무라종합연구소	2012.7.28	컨설팅	태국	직접투자/일본기업의 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자본금 2억엔
도와	2012.7.29	자동차부품	인도네시아	직접투자/자동차부품 열처리 공장 설립 투자규모 5억엔 전후
야마자키마작	2012.8.1	공작기계	싱가포르	직접투자/공장확장, 투자규모 약37억엔
대광	2012.8.1	광고	인도	직접투자/영업거점 설립, 미국 인터퍼블릭그룹(IPG)사와 공동으로 인도시장 개척
미쯔비시자동차	2012.8.2	자동차	태국	직접투자/연산 12만대에서 20만대로 생산능력 증강
데산트	2012.8.2	신발	한국	직접투자/신발 연구개발거점 설립
도시바테크	2012.8.2	POS시스템 사업	미국/IBM	직접투자/POS시스템사업 매수, 매수가액 660억엔
미쯔비시전기	2012.8.12	공작기계	브라질	직접투자/현지판매법인 설립
이토츄상사	2012.8.3	축전기	한국/넥스콘테크놀로지	업무제휴/이토츄상사가 기획, 판매 담당
미쯔비시전기	2012.8.3	자동차 관련 제품	태국	직접투자/내비게이션 생산능력증강투자 투자규모 약 15억엔

* 자료: 일본경제신문기사에서 정리

4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(1) 『일본의 산업기술에 관한 연구개발활동 동향』 경제산업성, 7월28일

*출처:http://www.meti.go.jp/policy/economy/gijutsu_kakushin/tech_research/index.htm

(2) 『모노즈쿠리 기반의 혁신 : 소비재산업의 최근 동향』 일본정책금융공고, 7월28일

*출처:http://www.jfc.go.jp/common/pdf/soukenrepo_12_07_27.pdf

(3) 『일본재생전략, 지평선을 열어 공동창조의 국가로』 국가전략실, 8월1일

*출처:<http://www.npu.go.jp/policy/pdf/20120731/20120731.pdf>

(4) 『주요 민간조사기관의 2012년도 경제전망』 8월2일, 중국전력에너지종합연구소

*출처:<http://www.energia.co.jp/eneso/keizai/research/MR1208-2.pdf>

(5) 『모노즈쿠리 벤처기업의 과제와 활로』 산·관·학의 도표, 8월3일

*출처:http://sangakukan.jp/journal/journal_contents/2012/07/articles/1207-02-1/1207-02-1_article.html